광주 금은방 강도 용의자 大盜 조모씨와 접촉 했다

경찰 밀항 시도 여부 조사

1980년대 '대도(大盜)'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조모씨가 광주 금은방 4인조 강도 사건 용의자와 접촉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사건 연루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지난 4월 발생한 3억원 대 금은방 강도사건을 수사 중인 광주남부경찰은 국내에 도피중인 이모(50)씨가 조모씨와 접촉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4인조 강도 일당 중 미검 상태인 이씨가 강도사건 뒤 휴대전화 등을 이용해 조씨와 접촉한 뒤 해외 도피를 논의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조씨를 상대로 이와 관련된 조사를 벌였다는 것이다.

경찰은 이씨에 대해 통신수사를 벌이던 중 이씨가 조씨와 최소 5차례 이상 통화한 사실을 확인했으며, 지난달 20~25일 사이 조씨의 집에서 조씨를 상대로 조사를 벌였다.

이 자리에서 경찰은 한때 '대도'로 불리며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조씨를 상대로 이씨와의 접촉 여부와 국외 도피를 돕는 조건으로 금품을 제공받은 사실 등이 있는지를 집중 추궁했다. 조씨는 경찰에서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경찰은 '이씨와 조씨 사이에 금품이 오갔다'는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져 향후 수사 결과가 주목된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발생 뒤 '이씨가 조씨에게 200만원을 건네며, 중국으로 밀항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달라'는 부탁을 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말했다.

경찰조사 결과 이씨는 과거 청송감호소 복역 중 조씨를 알게 됐으며, 이씨는 조씨의 인맥을 이용해 중국으로 도피한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뜻하지 않은 이유로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애초 '대도' 조씨에게 밀항을 부탁한 용의자 이씨를 붙잡은 뒤 금품을 건넨 진술 등을 확보함으로써 조씨를 압박한다는 계획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어린이 영양교실 인기 7일 광주시 남구 주월동 삼육초등학교에서 남구보건소 영양사가 어린이들이 직접 차린 식품모형을 이용해 영양교육을 하고 있다. 남구보건소와 만성질환 사업단은 어린이 만성질환 예방을 위해 '찾아가는 어린이 영양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출장 교장' 기강 잡는다

도교육청 출장일수·사유 등 상세 보고 지시

전남도교육청이 과도한 출장으로 빈축〈광주일보 2일자 7면〉을 사고 있는 초·중·고 교장에 대한 '공직기강 잡기'에 나섰다

7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학교장 복무관리 철저 및 관련자료 제출' 공문을 일선 학교 750여곳에 보냈다. 공문에서 연수, 회의, 협의회나 각종 대회 참석 등 출장 사유와 출장 일수, 여비 지급액 등 상세한 내용을 제출하도록 했다. 특히 지난해 100일 이상, 올 상반기 50일 이상 출장 간 학교장은 별도 사유서를 작성해 내도록 했다.

이번 공직기강 잡기는 일선 학교장의 불필요한 출장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도 교육청이 매년 학교장 출장 현황 등을 보고받는 경우는 있어도 사유서까지 내도록 한 것은 처음이다.

도 교육청은 제출 자료 등을 토대로 출장의 문제점을 분석해 대책을 마련하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학교장은 주의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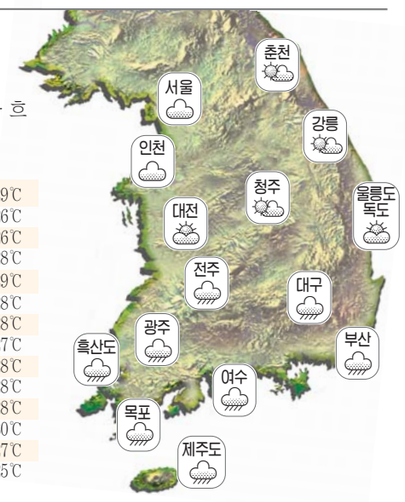
오늘 날씨

해뜸 05시 25분 / 해짐 19시 50분 — 달뜸 20시 30분 / 달짐 05시 51분

낮동안 장마 소강

장마전선의 영향을 받아 흐리고 비가 내리겠다.

광 주	흐리고 비	22/29℃
목 포	흐리고 비	22/26℃
여 수	흐리고 비	22/26℃
완 도	흐리고 비	23/28℃
구 례	흐리고 비	21/29℃
해 남	흐리고 비	23/28℃
장 흥	흐리고 비	23/28℃
고 흥	흐리고 비	22/27℃
순 천	흐리고 비	22/28℃
영 광	흐리고 비	22/28℃
진 도	흐리고 비	23/28℃
전 주	흐리고 비	21/30℃
남 원	흐리고 비	20/27℃
흑산도	흐리고 비	21/25℃



〈오전〉 바다	풍향	파고
서해 남부 앞바다	남서~서	1.0~2.0m
먼바다	남서~서	1.0~2.0m
남해 서부 앞바다	남서~서	1.5~2.5m
먼바다	남서~서	2.0~3.0m

자외선지수	식중독지수	불쾌지수
높음	경고	높음

〈오후〉 바다	풍향	파고
서해 남부 앞바다	남서~서	2.0~3.0m
먼바다	남서~서	1.0~2.0m
남해 서부 앞바다	남서~서	1.0~2.0m
먼바다	남서~서	1.0~2.0m

	밀물	썰물
목포	02:59 14:40	08:17 20:05
여수	09:24 22:09	03:40 15:26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 짜	9(목)	10(금)	11(토)	12(일)	13(월)	14(화)
날 씨						
최저/최고	22/27	22/28	21/28	22/29	22/29	22/29

누가 막걸리에 청산가리 넣었나?

중태 60대 숨져 … 순천경찰 단서 못잡아 수사 난항

'청산가리 막걸리' 사건을 조사 중인 순천경찰은 원한관계 등에 의한 범행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벌이고 있지만 뚜렷한 단서를 찾지 못해 애를 먹고 있다. 특히 경찰은 막걸리 병 등에 묻은 지문 감식에 기대를 걸었으나 지문 크기가 작아 수사에 도움이 될 만한 결론을 얻지 못해 수사 장기화마저 우려되고 있다.

7일 전남지방경찰청과 순천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전 순천시 황전면 희망근로사업 현장에서 막걸리를 나눠 마신 최모(여·59)씨가 숨진 데 이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정모(여·69)씨도 이날 밤 9시께 숨졌다.

경찰은 7일 오전 숨진 두 사람의 시신을 부검한 결과, 청산가리(청산염) 중독사라는 잠정 결론을 얻었다.

경찰은 누군가 고의적으로 막걸리에 청산가리를 넣어 최씨의 마당에 가져다 놓은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으나 단서를 찾지 못하고 있다. 경찰은 30여명의 인력을 투입해 문제의 막걸리와 청산가리 구입처 확인작업 및 주변 사람들에 대한 탐문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문제의 막걸리 두 병이 황전면이 아닌 순천시내에서 판매되고 있다는 점과 사건이 외진 농촌마을 한가운데서 발생했다는 점을 감안, 원한에 의한 범행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경찰은 조만간 270여명의 주민들을 상대로 외지인이나 새벽 시간 최씨 집을 배회하거나 막걸리를 놓고 간 사람 등을 목격했는지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또 문제의 막걸리 병과 이 병이 담겼던 검은 비닐봉지에서 1개씩의 지문을 채취해 정밀 감식을 의뢰했지만 지문 크기가 작고, 최씨의 것일 가능성도 있어 용의자 파악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막걸리를 함께 마신 장모(여·76)씨 등 2명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동부취재본부=김은종기자 ejkim@

부인과 불륜 의심 남편이 이웃 살해

자신의 부인과 불륜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이웃을 살해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광산경찰은 지난 7일 같은 건물에 세들어 사는 40대 남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박모(41)씨에 대해 살인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6일 밤 10시께 광주시 광산구 월곡동 다세대 주택 2층에 세들어 사는 이웃 김모(43)씨의 온 몸을 흉기로 6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다. 박씨는 또 흉기로 자신의 부인 김모(36)씨의 복부를 한 차례 찌른 혐의도 받고 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심한 폭행이 원인"

장성 종교시설서 숨진 20대

지난 5월 장성의 한 종교시설에서 숨진 채 발견된 20대 청년의 사망원인은 심한 폭행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장성경찰은 6일 20대 지적장애인을 폭행해 숨지게 한 장성군 한 교회 집사 A(42)씨에 대해 폭행치사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폭행에 가담한 교회 목사 부인 B(57)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5월 22일 '음식을 훔쳐먹는 버릇을 고쳐주겠다'며 지적장애인 김모(24)씨를 한 시간 가량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장성=류종선기자 yjs52@